

加賀繡

歴史

室町時代の初期、加賀地方への仏教の布教とともに主に仏前の打敷[うちしき]、僧侶のお袈裟[けさ]など仏の荘厳[しょうごん]飾りとして京都から伝えられた手刺繡の技法である。当初から極めて尊いものとして制作され用いられてきた。

刺繡は、手でもってひと針ひと針仕上げるのと、ミシンでもって仕上げるのと2通りの加工方法がある。加賀繡は、前者である。従って大量生産はできないが、ミシンには出来ないキメ細かい加工や、風合いのある加工が可能であり、これにより伝統産業に相応しい加工製品を製造することが出来る。



特色

加賀繡は、加賀百万石の美と誇りが育んだ指先の繊細で高度な刺繡技術である。金糸・銀糸をはじめ多種多様の絹の糸色を用い、ひと針ひと針丹念に手で縫い上げて描き出す絵や模様を立体感あふれる美しい図柄で浮かび上がらせるのが特徴であり着物や帯に華やかな表情を持たせてきた。

また、工芸品の幅を広げようと加賀繡を使って表現する絵画(額絵)や傘に和紙や刺繡糸をあしらったルームランプやタペストリーを中心としたインテリアの開発にも取り組んでいる。



가가자수

역사와 특색

가가자수는 14 세기 중엽, 불교의 포교와 함께 교토로부터 가가지방에 전해져 불상의 깔개, 승려의 가사 등 부처님의 장엄한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세련된 가가자수는 풍요로운 번으로 번성했던 가가번 전통공예의 하나로 발전했다.

가가자수는 한 땀 한 땀 공들여 수 놓아, 입체감을 주는 아름다운 무늬가 특징이다. 금사와 은사를 비롯해 다양한 색상의 견사가 사용되고 있다. 불구와 일본전통옷 기모노, 오비(장식용 띠), 족자 등 외에, 최근에는 장식용액자, 룸램프, 태피스트리 등 실내 장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白山市(하쿠산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帯、訪問着、室内装飾品(오비(장식용 띠), 정장 기모노, 실내 장식품)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石川県加賀刺繡協同組合(이시카와현 가가자수 협동조합) 〒920-0367 金沢市北塚町西66-1(가나자와시 기타즈카마치 니시 66-1) TEL (076)227-8701 FAX (076)227-8705 http://www.kaganui.or.jp/